

제 2 차 대한두경부 종양학회

— 연 제 초 록 —

< 1 >

미세수술로 복합조직 이식술을 이용한 두경부 종양의 재건

국립의료원 성형외과

오 석 준

국소피판이나 근피판이 여전히 두경부 재건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두경부의 심한 결손부를 재건하는 데는 미세혈관 수술기법을 사용하는 원거리 조직의 이식능력이 재건외과 의사들에게 가능하게 됨으로서 재건영역이 넓어지게 되었다.

저자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국립의료원 성형외과에서 경험한 두경부 종양 제거후에 남은 심한 결손부를 미세수술에 의한 복합조직이식술로 재건한 13예를 증례 분석과 더불어 보고드리는 바이다.

증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13예의 환자중 12예의 환자에서 성공하여 92%의 성공율이었다.
- 2) 13예중 7예는 악성종양이었고 6례는 양성종양이었다.
- 3) 재건의 빈발부위는 안면부와 하악이었다.
- 4) 14개의 유리복합조직은 8곳의 각기 다른 공여부에서 얻었고 6가지 종류의 조직구성으로 이루어졌다.
- 5) 가장 빈번히 이용된 수용혈관은 표재성 측두혈관과 안면혈관이었다.
- 6) 평균 수술시간은 10시간이었다.



< 2 >

후두암 광역절제술후의 경부 식도 재건에 공장 유리 이식편 (jejunal free flap)을 이용한 증례보고

연세대의대 부속병원 성형외과*, 일반외과**, 이비인후과***

박 철* · 이영호* · 지훈상** · 홍원표***

후두암 광역 절제술이 후두뿐 아니라 식도의 일부분을 포함하게 될 때 수술후 초래되는 식도의 결손을 재건하는 방법으로 여러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현미경하의 미세혈관 문합술의 발달로 장, 특히 공장의 일부를 그에 분포하는 혈관과 함께 분리하여 경부혈관에 문합하고 식도 결손을 재건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공장유리 이식편 사용의 이점은 식도와 비교적 유사한 기관으로 대체한다는 점 이외에도 큰 식도 결손부를 일차에 재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에서는 후두암이 침윤된 경부식도를 광역절제한 후 동시에 공장유리 이식편으로 일차로 재건함에 있어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성형외과가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수술시간의 단축은 물론, 수술 후 보다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보고와 함께 증례보고하는 바이다.

< 3 >

안면부 재건에 이용한 도서형대흉근피판의 치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송중원 · 강진성

안면부 종양을 절제한 후에 생긴 광범한 결손을 미용